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르비에서 수능국어만점비법(<http://class.orbi.kr/class/29/>)과 문법꼭꼭씹어먹기(<http://class.orbi.kr/class/28/>) 무료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아라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제는 이번 6월 모의평가 문법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아래의 EBS 정답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어 A형에서는 3번째, B형에서는 2번째로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까요??

[201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14번]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동생 :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 ㉠ 이제 오는구나.

동생 : 누나밖에 없어? ㉡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누나 :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얼른 나가자.

동생 : 무슨 일인데?

누나 : ㉣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 ① ㉠은 ‘-는구나’ 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계시다’ 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 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께’ 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 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께서’ 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 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모시다’ 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 를 높이고 있다.

번호	정답	오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14A(오답률 3위)	⑤	48.6%	4.7%	7.7%	23.9%	6.6%	47.8%
번호	정답	오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14B(오답률 2위)	⑤	48.1%	4.1%	8.9%	21.7%	7.6%	48.3%

이미 분석을 해 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번 문제는 높임법(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을 물어본다는 측면에서 200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13번 문제와 주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문법 꼭꼭 씹어 먹기” 강의에서 강조했듯이 출제되는 문법 문제의 수가 증가했지만, 출제 가능한 주제는 이전의 기출문제(수능, 모의평가)에서 대부분 다 출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주제는 이미 수능과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던 문법 원리입니다. 그럼 200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13번 문제와 함께 높임법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200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13번] <보기>의 ㉠~㉣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인물은?

<보 기>

말하는 이

① 할아버지께서 시장에 가신다.
 ㉡ 영수가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다.
 ㉣ 할머니께서 지금 도착하셨어요.

듣는 이

- | | | |
|-----------|--------|------------|
| ① ㉠-말하는 이 | ㉡-주체 | ㉣-주체 |
| ② ㉠-듣는 이 | ㉡-주체 | ㉣-주체 |
| ③ ㉠-듣는 이 | ㉡-대상 | ㉣-듣는 이 |
| ④ ㉠-주체 | ㉡-듣는 이 | ㉣-주체, 듣는 이 |
| ⑤ ㉠-주체 | ㉡-대상 | ㉣-주체, 듣는 이 |

번호	정답	오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13	⑤	83%	4%	2%	6%	3%	83%

두 문제의 공통적 주제인 높임법에 대한 문법적 원리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개념	특징	
상대 높임법	말을 듣는 청자를 높임 (듣는 이를 낮추는 것도 포함됨 -해라체, 하게체)	해라체(낮춤) 하게체(낮춤) 하오체(높임) 하십시오체(높임)	
주체 높임법	서술어의 주체를 높임	높임 선어말 어미 '-시'에 의해 실현됨.	직접 높임: 주어를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통해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임
객체 높임법	서술어의 객체(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임	'드리다, 뵈다, 모시다, 여쭙다, 저' 등의 높임말, 낮춤말에 의해 실현됨	

그렇다면 이제 걱정이 생길 수 있죠? 이런 문법적인 원리들을 모두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앞서 강조했듯이 출제 가능한 문법적인 원리들이 이미 대부분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공부한 후 다른 문법적인 원리들까지도 학습한다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시험에 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기엔 여러분의 학습 부담이 너무 증가합니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수능 문법 문제는 여러분이 어려운 문법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문법적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문법 문제의 수능적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문법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요?

12.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 내가 ㉡ 빵을 먹은 건,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 우유를 꺼내 주셨다.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같이 드시지 않겠냐고 여쭙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그럼, ㉤ 우유나 마실까?” 하면서 식탁에 앉으셨다.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는데 ㉥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

- ① ㉠과 ㉡을 보니,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으로 쓰이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군.
-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있군.
- ⑤ ㉡과 ㉣을 보니,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이는군.

번호	정답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12	③	55%	18%	12%	55%	7%	5%

낮익은 문제죠? 여러분이 작년에 쳤던 예비평가 국어A형 12번 문제입니다. 이번 모의평가 14번 문제와 주제는 전혀 다르지만 문제가 갖고 있는 수능적 원리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

12번 문제는 <보기>에서 문법적 원리를 설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선택지를 잘 살펴보면 결국 목적어와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주어, 서술어, 목적어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택지 3번이 틀린 이유도 ㉢에서 생략된 것은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라는 점이죠. 이처럼 우리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선택지의 구성 원리를 파악한 후 틀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질 것은 안 따지고 안 따져야 할 내용을 따질 때 주관적인 오답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이번 모의평가 14번 문제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필요한 문법적 원리를 암기하고 올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기>에서 다음과 같이 모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틀린 선택지를 만들 때 사용될 포인트가 되는 기준을 잘 정리해서 이해해야겠죠?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 ①주체 높임법: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
- ②상대 높임법: 대화의 상대인 청자↑or↓
- ③객체 높임법: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

이제 출제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결국 예비평가 1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틀린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은 우선 선택지 ②번, ③번, ④번과 같이 주체를 객체라고 하거나 객체를 주체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는 거 눈치 채셨나요?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의 경우 높이기만 하지만 상대 높임법의 경우 높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기도 하므로 이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택지 ①번의 경우 이를 이용해 오답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이처럼 여러분이 문법 문제에서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법적인 원리에 대한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문법 문제가 출제되고 선택지가 구성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문제에 대한 해설이 너무 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번 해설을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 문법을 공부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좀 더 완벽한 국어 실력을 갖추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 모의평가 문제들 중 정답률이 낮은 다른 문제들에 대한 해설과 강의도 곧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파이팅!! ^-^